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7회)

제4편 전도관

차례
제4편 전도관
一. 광야의 외치는 소리
 1) 너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
 2) 전도관의 시작
二.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1) 하나님의 축대는 전도관으로 옮겨졌다
 2) 구원은 전도관에만 있다
三. 광야에서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라

2) 감로 이슬성령은 완성된 성령 위에서 이슬 성령은 얼마나 놀라운 성령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이 완전한 성령을 인류 최초로 박태선 영모님이 받아 이루신 것이다. 이 완전한 성령은 감람나무라는 완성된 존재로 출현하신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스가라 4:11-12)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항상 너희안에 거하나니라. 너희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 없고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 " (요1서 3:27)

위 스가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라는 말이 나온다. 위의 참고 내용에서도 밝혔지만 성경상의 기름은 성령을 말한다. 그렇다면 기름이 성령이란 것은 알겠는데 위의 예언 속에는 그냥 기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금같은 기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는 무슨 뜻일까?

다시 말하면 보통 기름이 아닌 아주 특별한 기름 즉 아주 값진 기름이라는 뜻이다. 바귀 말하면 성령은 성령인데 '아주 값진 최고의 성령'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면 아주 값진 최고의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위에서 단계적으로 성령을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 완전한 성령인 제3단계의 성령인 이슬성령을 말한다.

감로 이슬은혜는 완성된 은혜인데 이 이슬은혜가 내린다는 것은 완성된 존재인 감람나무라는 존재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태선 영모님을 감람나무 장로님, 또는 감람나무 영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리있어 외쳐 가라사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사 40:3)"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어떤 말씀인가? 바로 구세주를 찾는 소리이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즉 이기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다. 또 '사막에서' 라는 말씀은 흰 모래밭 소(素砂)를 말한다. 이를 종합해서 말하면 소사평에서 구세주 하나님의 길을 장애물이 없도록 평탄하게 예비해 놓으라는 예언이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누가 외치는가? 바로 박태선 장로님이다. 무엇 때문에 외치는가? 구세주를 찾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손을 통하여 그 남자의 참기 힘든 통증이 박태선님에게로 전달이 되는 것이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었다. 그렇게 잠시 후 다시 안찰을 시작하였다. 전달되어 오는 참기 힘든 통증을 감당하면서 두시간 이상을 안찰을 하였다. 박태선님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세 시간 가까이 안찰을 하면서 보니까 그 남자의 얼굴에 빨그스레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박태선님은 마음 속으로 '이제는 살았구나'

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안찰을 하였다. 그런데 손을 통하여 그 남자의 참기 힘든 통증이 박태선님에게로 전달이 되는 것이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었다. 그렇게 잠시 후 다시 안찰을 시작하였다. 전달되어 오는 참기 힘든 통증을 감당하면서 두시간 이상을 안찰을 하였다. 박태선님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세 시간 가까이 안찰을 하면서 보니까 그 남자의 얼굴에 빨그스레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박태선님은 마음 속으로 '이제는 살았구나'

박태선장로' 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감로 이슬의 주인공 박태선장로' 라고 했어야 옳았지만 당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불같은 성령만 알고 있는 관에 이슬성령 운운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여 당장 이단이요 마귀라고 질타하면서 초장에 매도 당할 것을 생각하여 첫 단계 성령인 불의 성령을 열두에 두고 '불의 사자' 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었다.

박장로님의 집회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분의 집회는 아주 특별한 집회였다. 이적과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무수한 불치의 병자가 치

그러나 세 번 네 번 정도 받으면 통증은 사라지고 시원해지면서 받으면 받을수록 상쾌하고 생수가 통하곤 하였다. 이러니 그분의 집회가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만사 제쳐놓고 참석하였던 것이다. 그분의 집회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전국을 순회하시던 박태선님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집회방법을 바꾸어 대안집회를 계획하게 되었다.

1955년 3월 28일에서 4월 5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남산공원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 수 만 명이 모였다. 이어서 한강백사장 집회 등 대

량 비였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생각하였으나 날이 가면 갈수록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여기에 교권주의자 목사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제일 처음 1956년 2월 15일 경기노회에서 박태선 장로를 이단이라고 결의하고 박장로에 참석하는 교인은 제명한다는 공문을 경기지역 교회에 띄웠다. 그후 전국 총회에서도 박장로를 이단이라고 결의하여 전국 각지에 공문을 띄웠던 것이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성령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병어리 개라.(사56:10)"

여기서 파수꾼이란 하나님의 목자라는 목사들을 말한다. 파수꾼(목자=목사) 양떼들에게 도적이 오는지 늑대가 오는지 지켜보면서 양떼를 보호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그 목자 즉 목사들이 다 소경이라고 하였다.

그 목사들은 '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기 때문에 파수꾼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병어리 개' 라고 하였으니 도적이 오거나 늑대가 오면 짖어서 양떼들에게 경계를 시켜야 하는 것이 목자인 목사들의 의무인데 병어리 개가 되었으니 도적이 와도 늑대가 와도 짖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개들은 탐심이 있어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무지한 목자들이니 다 자기 길을 행하고 사방으로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도다.(사56:11-12)"

앞에서는 목사들이 다 병어리 개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에서는 이 개들은 탐심이 있어 죽한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목사들의 욕심을 말한 것이다. 교인들을 다 박태선장로에게 뺏길까 봐서 겁을 먹었고 그리 되면 밥줄을 다 뺏기는 것이니 큰 일이라고 여긴 목사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하늘의 사람인 줄을 알면서도 박태선 장로를 이단으로 몰아버린 것이었다. 결국 그들은 밥줄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하늘의 역사까지 대항하는 큰 잘못을 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뜻이 있어 벌이고 있는 천국잔치를(눅14장, 마22장)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가로막는다고 그것이 막아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지라"(눅16:3)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늘의 큰 뜻을 방해하는 우매한 목사들의 말로(末路)는 시간만 조금 연장될 뿐이지 비참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어쨌든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던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에는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박태선 장로님은 교권주의자들의 행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 후 잠시 동안 조용히 첩거하면서 기도시간을 가지셨다.*



천막집회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병어리가 찬송을 하며, 장님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 좌측부터 앉은뱅이, 병어리, 장님의 사진이다.

전도관 4편

一. 광야(曠野)의 외치는 소리

1) 너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
 박태선님은 3단계의 성령을 받은 후 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소변으로 피를 쏟았고 몸에서는 백합꽃 향기가 났다.

하루는 용산역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둘러서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았다. 그곳에는 기차에 치어 다리가 절단된 한 남자를 가마니로 덮어 놓았는데 피가 계속 흘러 주위는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죽은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너 저 사람을 살려보라"라는 음성이 들려 깜짝 놀라 순간 당황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가마니를 제껴보니 피를 하도 많이 흘려서 그런지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하였다. 가슴에 손을 대보니 희미하게 숨을 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태선님은 안찰을 시작했다. 먼저 눈에다 하고 다음으로 두 손을 몸매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가 있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안찰을 하였다. 드디어 그 남자는 깨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라고 중얼거렸다.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박태선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루는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사모님과 큰 아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 이것이 무슨 냄새야? 참 좋은 냄새가 나는데. 엄마 뭐 맛있는 것 플래 감춰 둔 것 아니야?" "글쎄. 엄마도 아까부터 이 냄새를 맡으면서 무슨 냄새가 하고 생각하는 중이다" 이런 모자지간에 대화를 들으면서도 당신을 통해서 나는 향취라는 것을 일절 말하지 않았다.

1954년 3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왔다. "너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라는 말씀이었다. 박태선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

1955년 1월 1일에서 1월 7일까지 서울 왕십리에 있는 무학교회에서 집회를 시작한 것을 시발로 전국 교회의 초청을 받아 순회집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급작한 총 천연포 포스터에는 박장로님의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고 "불의 사자 박태선 장로 대 부흥회"라는 활자가 크게 써여 있었다. '불의 사자'

유방였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병어리가 노래하고...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황홀하게 되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사35:5-6)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분의 집회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슬이 폭포수 같이 내렸고 또 향취가 진동했다.(호 14:5)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에게는 안찰과 인수를 해 주었다. 또 상당한 사람에게는 몸 안찰을 해 주었다. 안수받고 안찰받은 사람들은 그 즉시로 은혜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성경에 "바울이 그위에 손을 안찰(按摩)하며 성신이 그위에 임하시(행 19:6)" 라는 말이 써여 있는 것과 같이 박태선님은 그와 같은 안찰을 하여 성령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안찰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매우 아프다'고 하였다. 박장로님은 죄 때문이라고 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돼지 먹다는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여인들은 아기를 낳을 때의 해산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단위집회를 계속하였다. 전국 기독교의 목사들이 때를 지어 와서 박태선님에게 안찰을 받고 가곤 했다. 목사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호텔에 방을 잡아놓고 그곳에 박태선님을 몰래 모셔서 안찰을 받곤했던 것이다. 박태선님은 당신이 이루어야 할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매번 그 목사들의 청을 다 들어 주었다. 안찰을 받은 목사들 중에는 능력이 생겨 자기 교회로 가서 교인들에게 안찰을 해 주는 목사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웃기는 일도 많았다. 그중 하나는 문선명과 관련된 에피소드다. 남산집회에서 설교하는 박장로님께 누군가가 메모쪽지를 전달했는데 '문선명이가 이 쪽지를 보내왔는데 자기가 구세주이니까 박장로는 자기에게 와서 경배하라'라는 내용이라고 알려주면서 크게 웃으셨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다. 기독교 교권주의자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이었다. 박태선님을 통하여 안찰을 받아 성령충만함을 받은 목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했던 것도 잠시였다. 목사들이 꿈꿨던 생각해보니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박태선 집회가 있는 날이면 집회장 주변 교회의 교인들은 다 박태선 집회에 참석하러 가기 때문에 교회들이 텅

도덕경 27장

도인과 범인은 어떤 차이 있을까? 간명하게 두 가지 의미의 존재로 대별해 본다면, 사람이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상관관계로써 그 가치와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생긴다고 본다.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도인은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보석이라면, 그렇지 않는 범인은 흙과 돌로 뒤섞여 버려진 원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석은 인간의 순수본성이라 할 수 있다. 찬란한 광채는 그 본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품격이다. 보석은 또한 어떤 것보다도 빼어나다. 사람은 누구나 이 보석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 아마도 아름답고 투명한 것에서 발하는 찬란한 광채가 마치 인간의 본성을 닮아서 그럴 것이다. 누구인가 귀히 여기고 소중히 간직하고픈 보석은 우리 인간의 순수본성을 빼닮았다. 인간은 혹여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기대에서 그런 것일 게다. 순수본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광채와 같은 인간의 고품격, 그 고품격은 어떤 것일까? 이 장을 통해서 무슨 부자만이 특별히 가질 수 있는 물질적인 보석이 아닌, 본래부터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 진면목, 그 찬란한 마음의 보석(眞善美)을 들여다보자.

도덕경 해설



善行 無穢迹(선행 무척적): 선한 행위는 바퀴자국을 남기지 않음 같고
 순수본성(양심)에 의한 선한 행위는 타인과 만물을 하나로 보는 일체이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다.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만심과 공명외식 자체가 없는 것이 도인의 삶인 것이다.
善言 無瑕譎(선언 무하적): 선한 말은 흠과 티가 없다
 도인은 자기 성찰과 수양을 통해 인격적으로 어느 한 경지에 이른 자를 말한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흠과 티를 찾아보기 어렵다.
善數 不用籌策(선수 불용주책): 선한 헤아림에는 계산도구가 필요 없다
 도인의 행위는 범인이 볼 때, 선하고 의롭다 판단이 되어 이면에서 무슨 계산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도인은 그러한 삶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이다.
善閉 無關鍵 而不可開(선폐 무관건 이불가개): 선하게 닫으면 문은 문빗장으로 잠그지 않아도 가히 열 수가 없고,
 위 문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是以聖人 常善求人

시이성인 상선구인



도인의 행위는 범인이 보아서는 흠과 티가 없는 것으로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행위 자체가 진리와 법과 같은 것으로 이의가 있을 수 없었다.
善結 無繩約 而不可解(선결 무승약 이불가해): 선하게 맺으면 밧줄로 묶지 않아도 가히 풀 수가 없다
 도인과 성인은 고통과 불행에 빠진 만물과 인간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명령

있었는데 마음이나 인관관계에 있어서 끊고 맺음이 규모와 절도에 맞게 행한다는 것이다.
 是以聖人 常善求人(시이성인 상선구인): 그래서 성인으로서 항상 선으로 사람을 구하고

이와 본분으로 여기는 자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선악시비를 가리지 않고 범인이 처해진 고통과 불행의 늪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일념(一念)이자 소원인 것이다.
故無棄人 常善求物(고무기인 상선구물): 고로 어느 누구도 꺼려하지 않고 항상 선으로 만물을 구하며,
 도인은 분별심이나 차별심이 없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자신의 지체와 생명처럼 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故無棄物 是謂調明(고무기물 시위습명): 고로 만물을 꺼려하지도 않으며, 그래서 이르기까지 밝음에 둘러 쌓여 있다 하는 것이다

사람만 아니라 만물도 생명 있는 것으로 그것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항상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이다.

故善人者 不善人之師(고선인자 불선인지사): 고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요

고로 도인은 그의 마음 씀씀이와 행위 자체가 범인의 본보기와 뜻대가 되어 마땅히 스승이 될 만한 것이다.

不善人者 善人之資(불선인자 선인지사):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선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존속 되는 것이다. 만약 선한 사람이 없다면 온 우주는 파괴와 멸망과 영원한 어둠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고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뜻대이자 빛이며 생명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김주호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 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